

“과거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 역시 준비할 수 없다”

호국영웅알리기 프로젝트 - 호국영웅의 동상·흉상·추모제 등 다양한 활동 서해수호의 날 지정 - 연평해전·천안함폭침·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추모

지난해 10월 7일 취임한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이 어 느새 취임 1년이 되었다. 서부보훈지청은 도내 서부지역 6개 시군에서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우실 보훈지청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들어본다.

▲ 취임하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바로 엊그제 취임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를 비롯한 전북서부지역 6개 시·군 1만 7천여 가구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행정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훈정책을 알리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바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보훈업무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열심히 함께 해 준 여러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훈제도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1년 전 취임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 다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러낼 기회를 주신 전주매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취임 후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 국가보훈처가 2015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호국영웅알리기 프로젝트'를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출신학교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많죠. 이런 국민정서에 맞게 지역별로 우리고장 출신 호국영웅의 동상이나 흉상을 설치하고 학교에 추모비를 세우며 도로 및 회의실, 강당에 호국영웅의 이름을 붙이고 추모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는데요.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도 제일 먼저 지난 2월 1일 지정 1층을 호국영웅홀로 명명하고 개관식을 개최했으며, 2월 18일에는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과 호국영웅 부교재를 발간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 향후 청소년들의 나라사랑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육군부사관학교에는 이미 최득수·서부덕 상사의 흉상을 비롯하여 육탄10용사 흉상 건립, 부사관학교 내 양성교육대와 교내 도로명에 호국영웅 명칭을 부여해서 호국영웅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는데요, 올 2월에는 김만술·연제근 상사의 흉상 제막식과 8월 25일 백재덕 상사, 여방오 중사, 이종세 상사를, 26일에는 이명수 일등상사와 안낙규 일등중사의 흉상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개최하여 호국영웅을 알리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적극 추진하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난 3월에는 처음 시행된 서해 수호의 날이 있었죠. 정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연평해전,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서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나날이 심해져 가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해서 국민의 안보의

식을 하나로 결집하는 날로 정한 날인데요, 올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 및 부상자,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7천여 명이 참석하여 추모식을 개최했고 그밖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도 3. 25. 군산 여성교육장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익산과 김제지역은 안보결의대회를 보훈단체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관련사건전을 익산역 등에서 전시하여 지역주민에게 호국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인,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수난과 발전의 역사에서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호국·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호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익산우체국, 익산고용노동지청, 익산세무서와 상호간 '일일명예기관장' 위촉하는 체험행사를 함으로써 서로 기관 간 소통, 공유, 협력 등 정부3.0 실천과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구현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11일 익산소방서와 '일일명예기관장' 체험행사를 갖고 익산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고령 보훈가족을 위해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하고 수시 방문을 통해 불편사항 확인, 후원물품 전달 등 고령 보훈가족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아직도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보훈의식이 낮은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추진 중인 나라사랑정신 함양 프로그램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지요

아마도 6.25와 같은 큰 전쟁을 겪은 세대보다 격지 않은 세대가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교육의 부재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25전쟁 발발 연도를 묻는 문제에서 청소년 절반이상이 정확한 답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확

립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게 주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보훈의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년 육군부사관학교와 나라사랑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를 운영해 청소년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매년 약 3,000여명의 학생들이 나라사랑 병영체험을 통해 나라사랑정신과 안보의식을 더욱 고취시켰나갔으며, 수료식이 끝나면 우수학생에게 보훈지청장상 시상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원광대가 나라사랑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되었고, 대학생들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말에 원광대학교에서 안보도론대회를 성대하게 치렀고, 6월3일에 학술세미나도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대학생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광대학생들을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대학생과 함께하는 호국안보체험 캠프행사를 열어 원광대학교 학생 30여명과 판문점, 도라산역 등을 탐방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내일의 일꾼으로서 각자의 마음가짐을 다져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젊은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난 8월 30일에는 2016 대한민국 충효대상 보훈공적 공로부문 국가보훈발전공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참 송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충효대상은 정치·사회·문화·예술·과학·스포츠 부문과 일반 기업 및 공직부분 등에서 평소 봉사·선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사람에게 수여한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을 제가 받았더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소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본분을 다 했을 뿐인데, 이러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이 상은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17일부터 올해로 50회를 맞이한 '제대군인 주간'인데요, 정부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등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주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대군인의 의미와 제대군인들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제대군인은 군인으로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현역에서 사회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모두가 제대군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 복무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장기복무 제대군인, 5년부터 1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라 부르고 있고, 그 외에는 의무복무사병,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서 그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광주 등 6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어 제대군인 특성에 적합한 1:1현장 맞춤형 취업지원과

전직기본교육 등의 전역 단계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과거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 역시 준비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물질적 풍요의 발전된 조국, 그리고 성숙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피와 땀과 당시 이름도 낯설었던 한국 땅으로 건너와 평화를 위해 싸운 UN참전군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사회에서 대우 받고 인정 '명예롭게' 느껴지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물질적 예우뿐만 아니라 정신적 예우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여러분들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장양원 기자



세상을 바꾸는 발효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6. 10. 20 - 10. 24 전주월드컵경기장

www.iffе.or.kr

IFFE 14th Since 2003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 해외기업관**
외인, 치즈, 발사믹식초, 올리브오일, 실라미 등 세계 20개국 대표 발효식품 전시
- 국내기업관**
1관 | 농식품 R&D 연구기관 참여 정책 홍보관
2관 | 지역 특화클러스터 전략 상품전, 도지사인중 상품전, 중소기업청 수출진흥상품전 등
3관 | 정류, 절임류, 전통제과 등 3,000여개 국내 대표 발효 식품 전시 및 판매
- B2B 무역상담회**
식품기업과 전문 바이어의 1:1 수출구매상담회
- 외식산지폐어**
외식전문바이어와 지역 농 및 식품기업 자유 상담
- 발효식문화 교육체험**
장만들기, 김치 담그기, 치즈 만들기 등 발효식품을 테마로 한 흥미로운 식문화 체험 이벤트
- 특별 기획전**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전
정성과 고집으로 지켜온 고추장, 김치, 술, 김식초 등 대한민국 식품명인 특별전
전라북도 토탈관광전
전북 14개 시군 관광프로그램 소개
- 국제발효컨퍼런스**
산·학·연 연계 최신 발효기술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 특별세미나

주최: 전라북도, 익산시
주관: JIF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융합혁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방농수산청, 관세청, KFI 전북국제식품엑스포, 전북농업기술원, ARAM SOLUTION